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
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

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6. 8. 27.(목) 06:00 이후(8. 27.(목) 석간) / 배포 : 2026. 8. 26. (수)

「공간민주주의 헌장」(안) 제안 국회토론회 개최

국가건축정책위원회, 일상 공간의 가치를 키우는 새로운 공간정책 비전 제시

□ **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(위원장 김진애)**는 8월 27일(목)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·한준호·염태영 국회의원과 문화연대·도시연대·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**「공간민주주의 헌장」(안)을 제안**하고, **이를 새로운 공간정책으로 발전시켜 지방자치에 뿌리내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**한다.

○ 세계 곳곳에서는 지난 세기부터 **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·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에 대응**하기 위해 **도시헌장·인권헌장·문화헌장 등을 통해 시민이 공유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**해 왔다.

○ **국가건축정책위원회**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**「공간민주주의 헌장」(안)을 마련**하여, **빛의 혁명으로 발현된 'K-민주주의'의 가치와 양극화를 극복하는 '경제민주화'의 가치를 일상 공간 속에서 이어가고자 한다.**

○ 이번 **토론회**에서는 **이러한 헌장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**하고, 이를 **지방정부의 공간정책으로 구체화·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**한다. '공간민주주의 헌장(안)'이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공간정책 수립·추진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기본 철학과 가치,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중심의 공간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「공간민주주의 헌장」(안)**은 민주주의가 정치와 제도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, **공간을**

단순한 개발의 대상이 아닌 **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선언**하고 **시민이 공간의 주체로 참여**하는 **새로운 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**한다.

○ 이를 위해 **공간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3대 기본원칙**으로 **▲시민의 권리와 참여**를 통한 시민 주체의 공간정책 **▲다원성과 포용성**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삶과 문화의 공존 **▲지속가능성과 지역성**을 고려한 미래세대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.

○ 또한 ▲권력 독점에 따른 공간 주체성의 약화 ▲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단절과 공간 분절 ▲획일화에 따른 다양성과 지역성의 상실 ▲과시적 개발에 따른 일상의 감동 상실 ▲개발 압력에 따른 공간과 공동체의 단절 및 공간자산 훼손 ▲지역소멸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 등 **우리 사회가 공간을 통해 겪고 있는 6가지 극복과제를 제시**하였다.

○ 아울러 **공간민주주의의 가치가 일상 속 구체적인 공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2대 실천의제를 제시**하였다. 주요내용으로 시민이 공간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▲공간주권과 ▲시민 숙의를 강화하고, ▲관계성과 ▲사적공간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사람과 사람, 공간과 일상이 연결되도록 하였다. 또한 ▲지역성과 ▲시간과 기억의 축적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고, ▲걷고 싶은 도시 ▲일상의 여유 ▲다원성과 포용성을 통해 누구나 걷고 머물며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였다. 나아가 ▲지속가능성 ▲정주성 ▲삶의 질과 행복을 통해 현재의 편리함을 넘어 미래세대까지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 방향을 제시하였다.

□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의 의미와 정책적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.

○ 참석자들은 공간정책의 기준이 '무엇을, 얼마나 많이, 빨리 개발할 것인가'에서 '어떤 삶을 담아낼 것인가, 그리고 얼마나 지속가능한가'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.

○ 또한 공간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, 시민의 공간주권 회복과 공공성 강화, 지역성과 공동체 회복,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.

□ **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**은 **“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, 이제 민주주의는 시민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속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”**며, **“공간민주주의는 시민이 걷고 머무는 거리와 광장 등에서 시작되는 가장 생활적인 민주주의”**라고 강조하였다.

○ 이어 “이번 **공간민주주의 헌장(안)이 지방정부의 공간정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, 걷고 머물고 가슴 뛰는 공간이 일상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**한다”고 밝혔다.

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「공간민주주의 헌장」(안)의 가치와 철학이 지방정부의 조례와 사업 등 공간정책 전반에 확산·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.

붙임 : 행사포스터 및 사진(토론회 후 추가 배포)

담당 부서	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기획단	책임자	과 장	정민승 (02-397-5505)
		담당자	사무관	곽재민 (02-397-5507)

붙임 **공간 민주주의 헌장(안) 제안 국회토론회 포스터**

